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5년 12월 2일 · 제334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컨테이너 운항선사, 수익 급감으로 초대형선의 계
선 결정
2. 맥킨지, 교통물류 부문 가치창출 성공사례 분석 보
고서 공개
3. 말레이시아, 세계은행과 항만 개발전략 수립
4. 브라질, 100억 달러 규모의 'Port Master Vision'
발표

| 물류시장동향 |

1. RZD 로지스틱스, 불가드네프르사와 전략적 제휴
체결
2. CEVA, 브라질 물류센터 개설

| 공지사항 |

1.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 연구 공청회
개최
2. 제10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
3.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
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물류정책 · 사업동향

컨테이너 운항선사, 수익 급감으로 초대형선의 계선 결정

- 선주들이 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른 운임 및 수익 하락으로 컨테이너선을 빠르게 계선 (lay-up)하고 있어 유휴 선복량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Drewry가 언급함
 - 컨테이너선 선주들은 시장수요 감소, 선박 공급과잉, 운임이 인하됨으로써 4분기 계선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은 얼마나 많은 선박을 계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임
 - 선박 계선은 선박에 선원을 승선시키고 승인만 나면 수일 내로 운항 가능한 상태로 대기하는 계선(hot lay-up)과 선박의 모든 필수 시스템의 전원도 끄고 1~2명의 선원만 남겨두고 하선 시키는 계선(cold lay-up) 두 가지가 있으며, 후자는 운항준비까지 수주일이 걸림¹⁾
- 현재 컨테이너선 유휴 선복량은 2009년 말 최고치인 11%(140만 TEU)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전체 선복량의 약 4.6%로 높은 편임
 - 컨테이너선 유휴(idle) 선복량은 2015년 10월에서 11월까지 52% 증가하여 90만TEU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9년 시장붕괴 이후 2010년 초 실적 이래 월말 최고 수준임
 - Drewry는 유휴 선박을 최소 14일 동안 운항하지 않은 선박이라고 정의함
- 최근 월 계선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선 위주로 계선을 늘렸기 때문임
 - Drewry에 따르면 2015년 11월 16일까지 Triple-E(18,000 TEU)급인 Morten Maersk선박을 포함하여 8,000 TEU 이상 초대형선 13척이 계선되었음
 - 이러한 초대형선의 계선 비율 증가는 감속운항과 운항선박량 조절로는 동서항로에서 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냄
- 현재의 대규모 컨테이너선 유휴 선복량 증가 이유가 2009년 경제위기와 같이 수요감소가 원인이 아니라 선복량 공급 과잉에 의한 문제여서 즉각적인 해결 가능성은 낮음
 - 2009년에 선사들은 수요 침체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해 선복량을 많이 줄이지 못해 170~18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그 다음해 수요 급등으로 약 2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여 2009년에 발생한 손실이 상쇄됨
 - 2009년의 대규모 유휴 선복량 증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의한 수요 감소가 원인이었는데, 현재의 유휴 선복량 증가는 수요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 컨테이너 선복량 즉 공급과잉이 원인임
 - 올해 운영선사들이 8,000 TEU급 이상 선박을 계류시킴으로써 컨테이너선의 이론상 총선복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거래건당(trade-by-trade basis) 선박 요구량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유휴 선박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Drewry가 언급함

1) 한국해운신문, "최근 컨테이너선의 계선 증가의 특징과 한계, 2012.12.29.



- 또한 올해 컨테이너 선박의 계선 특징은 11월 기준 8,000 TEU급 이상 초대형선의 계선 선박 중 절반 이상(51%)이 운항선사가 아닌 선주 소유 선박임
 - 11월 기준 8,000 TEU급 이상 계선 선박 31척 중 16척은 선주 소유이고, 15척은 운항선사 소유임
 - 최근 상대적으로 운항선사의 계선 선박이 선주 소유보다 적은 이유는 운항선사들이 용선중단(off-hire) 약관이 있는 용선 선박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임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5.11.23.; www.joc.com 2015.11.23.

이연경 전문연구원
051-797-4682, eklee@kmi.re.kr



맥킨지, 교통물류 부문 가치창출 성공사례 분석 보고서 공개

-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기관 맥킨지는 최근 전세계 교통물류 업체의 경영 성과를 분석하여 지난 10년간 동 부문의 가치창출 성공 요인을 발표함
 - 항공, 버스, 화물 중계, 우편 및 CEP(쿠리어, 익스프레스, 소하물 등), 철도, 해운, 트럭킹, 계약 물류 등 교통물류 관련 8개 분야 264개 상장 기업의 지난 10년간 경영 실적을 분석 대상으로 함
 - 맥킨지는 특히 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교통물류 부문이 위기 이전 또는 위기 이후 어떤 전략을 통해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의 비결을 성공사례를 통해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동 조사를 실시했음
- 맥킨지는 분석을 통해, 교통물류 산업의 특징을 다음의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교통물류 부문은 전체적으로 타 부문에 비해 자본시장 실적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분석대상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전 부문 3.6%의 연평균성장률(CARG)을 기록함으로써 타 부문에 비해 평균 이상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였으나, 투자자본회수율(ROIC)은 7.5%로 타 부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기업의 하위 60% 기업은 상위 40% 기업이 창출한 이윤규모의 3.5배에 해당하는 손실을 기록했으나 일부 기업은 가치 창출에 성공함
 - 맥킨지는 이와 같은 성공적인 교통물류 기업은 이윤 폭과 자본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담한 전략을 구사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분석함
 - * 맥킨지는 주요 예로, 대량주문에 대한 가격할인 및 일일기준 최고급 품질의 비행시간 제공 등을 통해 포화 상태의 유럽 항공시장에서 가치창출에 성공한 영국의 대표적인 저비용 항공사 이지제트(easyJet)와 아일랜드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Ryanair)를 성공사례로 들고 있음
- 교통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자의 회의적 시각을 극복하는 핵심은 투자자본 회수율의 개선인 것으로 조사됨
 -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교통물류 부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특히 낮은 투자자본회수율 등이 작용하여 S&P500인덱스의 평균치를 밑돌고 있음
 - 맥킨지는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낮은 투자자본 회수율을 개선하는 일이 교통물류 부문 가치창출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함
- 맥킨지는 향후 기술혁신 등 7개의 메가트렌드를 어떻게 따라잡는가가 교통물류 기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함
 - 7대 메가트렌드에는 거대도시(메가시티) 및 새로운 성장지대의 등장, 기술관련 솔루션의 공유, 기술혁신, 규제 여건 및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 수요 및 투입요소 측면의 가변성 증가 등을 포함함



- 맥킨지 보고서는 아울러 향후 교통물류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어질리티(agility)의 향상과 '자산 딜레마'의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교통물류 부문은 거대한 자산-집약적(asset-intensive)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럴수록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하는 것이 향후 기업 성공의 관건임을 강조함
 - * 맥킨지는 성공사례로 신흥 e-commerce 부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전통적인 우편 및 인쇄 부문을 과감하게 축소한 싱가포르우편(Singapore Post)의 사례를 들고 있음
 - 아울러 맥킨지는 교통물류 기업들이 경쟁자를 꺾기 위해 과도한 자산매입에 나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교통장비 또는 인프라에 자금을 잠기게 하는 이른바 "자산의 덫"(asset trap)에 스스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높은 자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치게 자산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음

자료 : www.gscintell.com, 2015.11.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말레이시아, 세계은행과 항만 개발전략 수립

- 세계은행(World Bank)은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수립을 진행하고 있음
 - 이번 전략수립의 주요 목적은 항만의 발전은 물론, 정부가 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항만 계획, 규제, 관리, 권한 부여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
 - 과거부터 말레이시아는 환적 컨테이너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2004년 이후부터 싱가포르에서 처리되던 환적물량을 지속적으로 넘겨받고 있는 형태임
 - 하지만 포트클랑항의 배후단지 외부 지역을 활용한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 유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효율성 증대, 사바 그리고 사라왁(Sarawak) 지역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정책의 부족은 지역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항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예정임
 - 항만 간 경쟁 및 말레이시아 동부의 컨테이너 운송비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 질 예정이며 사바와 사라왁 지역 항만운영 타당성 연구 또한 진행될 예정임
 - 세계은행에 따르면 진행 중인 연구는 말레이시아 국가 목표에 따라 항만 부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본 연구에서 항만부문에 대한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항만개발전략 로드맵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말레이시아는 현재 소형 항만에 대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해서 항만 부문의 발전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운송부 장관인 Liow Tiong Lai씨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과거 말라카에 위치한 항만들에 대한 투자유치에 노력했지만, 현재는 말레이시아 대형 항만들과 중국 항만들과의 동맹을 모색 중임
 - 말레이시아는 국제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능력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한 상호 발전을 원하고 있음
 - 중국 투자자들은 현재 말레이시아 반도 동부에 위치한 Kuantan 항만의 지분 중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항만 확장이 이루어지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자료 : www.sea-web.com, 2015.11.25.

이홍원 연구원
051-797-4783, hongwon@kmi.re.kr



브라질, 100억 달러 규모의 'Port Master Vision' 발표

- 저널오브커머스(Journal of Commerce)에 따르면 브라질은 'Port Master Vision'을 발표하고 자국 항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Port Master Vision'에는 약 100억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4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항만 개발 계획은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첫 번째 단계는 항만 개발 구역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개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함
- 브라질 항만당국의 Helder Barbalho 부장은 “최근 브라질 항만 시설 사용량은 전체 수용량의 63% 정도만이 사용되는 수준”이라고 언급함
 - 또한 “향후 브라질 내 다양한 산업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엄청난 항만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이번 항만개발 계획에는 브라질 최대 항만인 산토스(Santos)항만도 포함되어 있으며 산토스 항만은 브라질 전체 항만 물동량의 약 40%를 처리하는 항만으로 2014년 기준 360만TEU를 처리했음



브라질 산토스 항만 전경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5.11.25.

손보라 연구원
051-797-4781,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RZD 로지스틱스, 볼가드네프르사와 전략적 제휴 체결

- RZD 로지스틱스와 볼가드네프르(Volga-Dnepr)는 교통·분야에서 전략적 제휴협정을 체결함
 - RZD 로지스틱스는 2014년 11월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철도청이 합작으로 설립한 UTLC(United Transport and Logistics Company)의 자회사임
 - 볼가드네프르는 1990년 이후 러시아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현재 영국, 미국, 아일랜드, 중국 등에 진출함
- 두 기업은 철도운임과 항공운임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에게 철도, 항공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RZD 로지스틱스



자료 : www.rzdlog.ru

볼가드네프르



자료 : www.volga-dnepr.com

자료 : http://logirus.ru, 2015.11.23

김은미 연구원
051-797-4778, usea1004@kmi.re.kr

CEVA, 브라질 물류센터 개설

- 글로벌 물류기업인 CEVA Logistics가 브라질 상파울루(Sao Paulo) 지역에 신규 지점을 개설함으로써 남아메리카로 사업을 확장했음
 - 새로운 물류센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미국의 잭슨빌(Jacksonville), 싱가포르, 영국의 애쉬비 드 라 주크(Ashby de la Zouch) 센터에 이은 네 번째 물류센터임
- CEVA의 브라질 신규 지점은 상파울루의 빌라 올림피아(Vila Olimpia) 지역에서 Thera 법인과 공동으로 운영되며 영업지원 업무를 맡을 예정임



- CEVA 브라질 지사의 Richard Vieites 전무이사는 CEV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가 매우 중요하며, 모든 고객의 니즈를 위한 업무 지원에 힘쓸 것이라 언급함
- 또한 신설된 물류센터는 효율적인 공급망관리(SCM)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임

자료 : www.gscintell.com, 2015.11.24.

황윤희 연구원
051-797-4786, hwangyh@kmi.re.kr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 연구 공청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수립 연구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2.8(화), 14:00 ~ 16:30
- 장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F 브람스홀
- 주제 : 국가물류기본계획(2016-2025) 공청회 및 패널 토론
- 행사안내 및 참가문의 : 신수용 전문연구원(051-797-4780, shinsy@kmi.re.kr),
고재성 연구원(051-797-4776, jsko@kmi.re.kr)
-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중구 을지로 16 백남관광 프레지던트 호텔 (☎ 02-753,3131)
 - 지하철 2호선 : 을지로입구역 8번 출구 도보로 4분
 -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5번 출구 도보로 5분 / 2번 출구 도보로 6분





제10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0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6일(수), 14:00~18:00
- 장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 2층)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 소개사업
 - 미얀마 씨트웨이(Sittway)항 현대화 및 배후지 물류인프라 개발사업 소개
 - 베트남 훈코아이(Hon Khoai) 심수항 개발 프로젝트 소개
 - 한중 FTA 시범도시, 중국 연태시 물류분야 개발 프로젝트 소개
 - 스페인 알헤시라스(Algeciras) 한국 비즈니스 클러스터 입주사업 소개
 - 해외 특수물류시장 진출방안 소개

*** 상기 소개사업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가신청 : 2015년 12월 15일(화)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nelt.or.kr/seminar/view?seq=27>
 - 또는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joohye915@kmi.re.kr)로 송부
- 참가문의 :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 본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192 (☎ 02-6050-3114)
 - 지하철 2호선 : 시청역 9번 출구 5분거리
 - 지하철 1호선 :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
 - 지하철 4호선 : 회현역 5번 출구 5분거리





중소 ·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 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 · 센터 · 창고, 항만 · 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 · 무역 · 인프라 · 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 ·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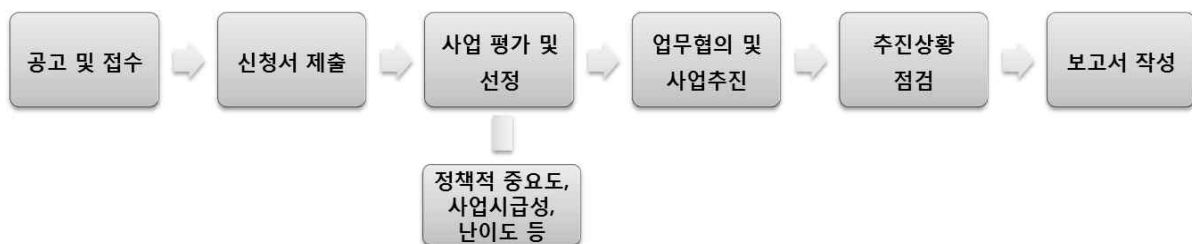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사업성·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별첨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

업체 개요	기업명		업 종	
	대표자		종업원수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전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지원요청 내용	국가/지역			
	관련 사업			
	문의사항			
신청자	부서		Tel	
	직위		Fax	
	성명		E-mail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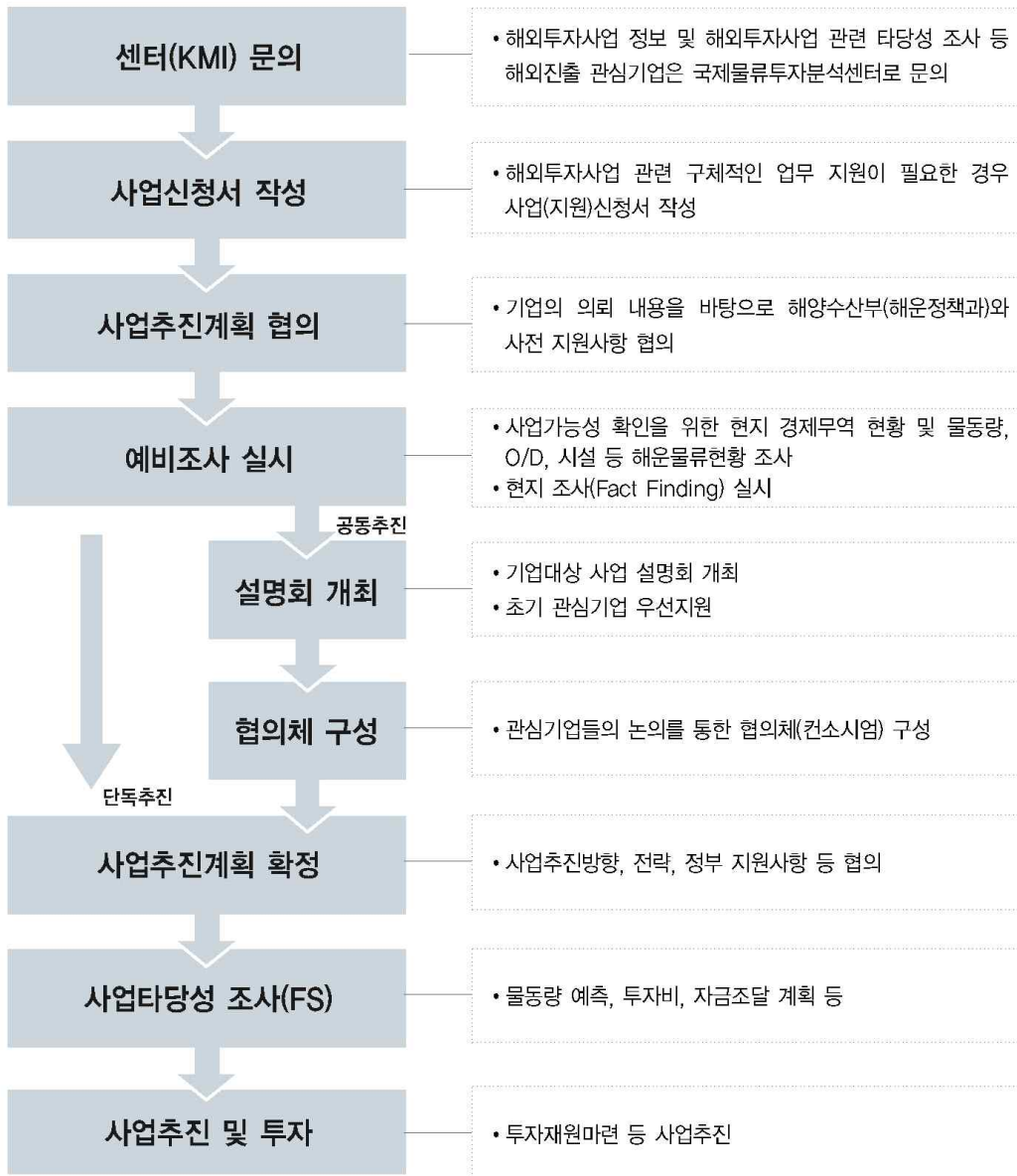
별첨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

업체 개요	기업명		업 종	
	대표자		종업원수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전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조사대상 사업개요	사업명			
	국가/지역			
※ 별첨 자료요청 (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공동조사 대상 사업 주요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10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의 목적 · 사업 세부내용 (대상지, 사업 분야, 사업규모, 사업방식 등) · 사업추진계획 · 현지시장 조사계획 · 기타 현안사항				
지원요청 내용	※ 필요시 별첨 자료로 제출가능			
신청자	부서		Tel	
	직위		Fax	
	성명		E-mail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목 록	※ 공동조사 대상사업 주요내용 및 지원요청 내용 별첨자료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